

미취학아동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재진** · 김은지***

초 록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주당 10시간 이상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보육·교육서비스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친인척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육시설이 다음이고, 유치원과 학원의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둘째, 가족이 저소득층일수록 다른 보육형태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인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관 이용보다는 친인척보육 이용 가능성이 높고,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관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도출된다. 첫째, 보육시설이용에 있어서 취업모기준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가 전일제 및 초과근로 등을 하는 여성들에게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육아지원기관이 민간 학원과 구분되는 공공서비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와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취학아동 가족에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미취학아동 가족, 보육·교육서비스 선택, 보육·교육서비스 유형, 여성가족패널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0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lemures76@hanmail.net)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kimeunji@kwidimail.re.kr)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둔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에서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국의 보육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21년 태화 사회복지관의 탁아서비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보육서비스 이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 1980년대 도시 저소득층 기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증하면서 이들 취업모 자녀의 방치문제가 대두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으며, 보육문제는 곧 빈곤의 문제로 인식되었다(김윤정·문순영, 2009). 그러나 당시에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인프라 구축은 매우 미흡하였으며, 민간 비영리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집단 돌봄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던 중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사업은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비로소 공공서비스로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기 시작한다. 이후 보육시설은 급격히 증가하여, 1991년 3,69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89,441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던 것이, 2009년 말 현재에는 35,550개소에서 1,175,049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으며 자라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편, 보육시설 증가에 따라 영유아의 기관이용이 일반화되면서 보육시설 이외에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교육서비스가 증가하였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 외에 유치원과 사설학원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래 유아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했던 유치원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종일반 확대

1)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육서비스를 친인척보육,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육서비스는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영유아의 특성상 교육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보육의 기능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도 종일반 강화와 반일제 이상 운영 등을 통해 아동에게 실질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을 통해 보육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보육시설과 기능상 유사해진 부분이 있으며²⁾, 또한 조기 영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와 정규 교육·보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 등을 배경으로 등장한 유아대상 반일제 학원은 보육·교육기관의 하나로 학부모들에게 인식되고 있다(이정원·이윤진, 2008). 그러나 보육시설과 유치원, 반일제 학원은 이용시간과 비용, 접근성 등에 있어 분명히 차이가 있다.

또한, 기관을 통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외에도 아동의 연령이 아직 어리거나, 부모의 일하는 시간이 길거나, 비용 또는 기타 양육신념 등의 이유로 친인척보육 등 개인대리보육을 이용하는 부모들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보육시설과 유치원, 반일제 학원, 친인척보육 등 여러 유형의 서비스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부모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과연 정부가 의도한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면서 공공서비스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즉, 정부가 지난 5년 간 부모의 보육료·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다’고 푸념하고, 제도적 지원과 감독을 받지 못하는 반일제 학원이나 친인척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주변에 아이를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녀를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만한 보육시설을 찾기 힘들다거나(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 2009),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적 수준에 대해 불만족하기 때문에, 혹은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시간이 일하는 시간과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일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이 아닌 가족 중에는 보육·교육서비스의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무료 친인척보육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는 맞벌이 부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종일반 운영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 3월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중 종일반에 다니는 유아에게 국공립 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 추측일 뿐, 지금까지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밝힌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들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보육·교육서비스의 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부모가 선택한 보육·교육서비스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아동을 둔 가족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비스 선택이란 이용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들 가운데 개별 가족이 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정부가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상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부모가 선택한 보육·교육서비스가 부모의 ‘선호’를 항상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로는 선호하는 보육·교육서비스의 유형이 너무나 비싸거나 주변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보육서비스를 항상 선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 아동을 둔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은 개별화된 가족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 이용가능한 서비스에 가족의 상황을 맞추거나(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이용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거하는 과정(process of elimination)을 거쳐 남은 서비스를 하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보육·교육 관련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나 출산율이 제자리 상태인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의 선택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서비스의 선택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일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과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 중 특정 유형의 기관

(국공립/민간 등)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술적 수준의 연구들이 다수 있다(김은숙, 2001; 서형미, 2002; 이경선·김주후, 2009; 임유경, 2008; 최영훈, 2008; 최인선, 2006).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김지경, 2004a, 2004b; 서문희·임상현·김유경, 2001; 백선희·조성우, 2005)의 경우에도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기관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친인척보육 등 개인대리보육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특히 이들 연구들에서는 구체적인 두 보육·교육서비스형태를 매칭(matching)하여 대비시키지 않고 한 보육·교육서비스 선택과 비선택을 비교하고 있어, 각 보육·교육서비스 형태의 기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된다. 예컨대 보육시설 대신 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와 친인척보육을 선택하는 경우 선택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나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모의 취업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결과에서 이 변수의 영향력이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으나, 모의 노동시간과 관련된 변수는 분석범주로 다루고 있지 않아 취업모의 시간요구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취학아동이 이용하는 주요 보육·교육서비스를 크게 친인척보육³⁾, 보육시설,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으로 구분하고, 이와 같은 보육서비스를 주 10시간 이상⁴⁾ 이용하고 있는 미취학아동 가족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의 주요한 분석범주에서 자주 누락되었던 친인척보육과 유아대상 학원이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육서비스 유형을 매칭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여러 차례 실시함으로써, 각 보육·교육서비스를

3) 친인척보육 외에 유급도우미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한국사회에서는 유급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가구가 매우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 전국 보육실태조사(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 2009)에서는 친인척이 아닌 유급도우미를 활용하는 경우는 전체 영유아의 2.4% 수준으로 빈도가 매우 낮았으며, 이 응답이 중복응답을 포함한 수치임을 감안하면 유급도우미를 주요 보육형태로 이용하는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급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4) 10시간이라는 기준은 기존연구(Early & Burchinal, 2001; Morrissey, 2008)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Ⅲ. 연구방법'의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에서 다룬다.

이용하는 가족의 특성을 다른 보육·교육서비스 형태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모의 취업여부를 넘어서서 부모의 노동시간을 중요한 독립변수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국외에서는 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선택과 관련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인과관계를 고려한 보육서비스 선택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이들 변수를 노동시간 변수, 계층 변수, 가족 특성 변수, 아동 관련 변수, 지역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⁵⁾. 다음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노동시간 변수

보육서비스는 본래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한 탁아서비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노동시간과 관련된 특성은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5) 이들 변수 외에도 부모의 선호와 신념도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부모가 선호하는 보육서비스의 특성(Early & Burchinal, 2001),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Blau, 1991, Folk & Yi, 1994에서 재인용), 양육신념(Johansen, Leibowitz, & Waite, 1996), 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NICHHD, 1997; Sylva et al., 2007) 등이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부모의 가치관과 신념은 분명 보육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이들 변수는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서비스 관련 특성(비용, 서비스의 질, 이용가능 시간 등)을 선택의 영향요인으로 보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같은 유형의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고 보고, 부모들이 각 유형의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비스 유형과 서비스 특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특성은 선택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의 취업이 보육시설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김지경, 2004a; 백선희·조성우, 2005; 서문희 외, 2001), 아직까지 국내 연구는 모의 취업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모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은 대부분 기관보육간의 선택에만 집중하고 친인척보육을 분석하지 않아, 노동시간이 매우 긴 한국사회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는 여성들의 시간부족문제를 친인척보육이 어떻게 완충하고 있는가는 본격적인 분석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단순히 취업여부를 넘어서서 노동시간과 보육서비스 선택 간의 관련성이 다양하게 연구된 바 있다. 양부모 가족의 2세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 유형을 조사한 Caruso(1992)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짧은 어머니들은 아버지나 친인척 등 가정 내 보호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노동시간이 긴 어머니들은 기관 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Seo, 2003에서 재인용). 또한 Peyton, Jacobs, O'Brien & Roy(2001)의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이 짧은 어머니들은 시설, 종사자의 훈련정도, 물리적 환경, 교육적 요소 등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비용, 운영시간, 위치와 같은 현실적인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한편, 부의 노동시간도 모가 일하는 동안 부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의 양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일부 연구(예컨대 Sylva et al, 2007)에서는 아버지가 제공하는 보호도 보육·교육서비스의 한 형태로 분류하여 종속변수에 포함시키기도 하나, 한국의 경우 남성의 가족 내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별도의 종속변수로 다루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에 부의 노동시간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6) 한편, 절대적인 노동시간 외에도 노동을 하는 시간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가 비전형적인 근로시간(야간 및 주말)에 일을 하는 경우, 이들의 보육서비스 이용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기관보육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보육서비스 비용이 높은 미국의 경우, 일부 부모들은 보육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비전형적인 노동시간을 택함으로써, 부부간 양육을 분담하기도 한다(Gornick & Meyers, 2003).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전략을 택하는 가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2. 계층 변수

가구소득이나 부모의 학력 등 가족이 속한 계층을 보여주는 변수들은 보육서비스 선택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가구소득⁷⁾은 보육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차등보육료 지원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아지면 기관 중에서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선·김주후, 2009; 김지경, 2004a; 서문희 외, 2001). 사교육의 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 유아대상 학원의 경우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학원이용이 증가한다는 결과(서문희 외, 2001; 이경선·김주후, 2009)와 무관하다는 결과(김지경, 2004a), 오히려 감소한다는 결과(김지경, 2004b) 등 상반된 결과가 보고된다. 또한 비기관보육에 해당하는 친인척보육의 경우 「2009 보육실태조사」와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등 최근의 대규모 조사에서 보육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기는 하나(서문희 외, 2009, 111-113; 이삼식·최효진·오형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 2009, 418-420), 통계적 영향력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예외적으로 서문희 외, 2001). 특히 모든 연구들에서 모의 취업시간이 통제되고 있지 않아 친인척보육이용이 모의 긴 취업시간을 완충하기 위한 선택인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가족의 선택인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추가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보육비용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은 미국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7) 가족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할 때는 명목가구소득 외에 가족의 규모를 고려한 욕구대비 소득비(income-to-needs ratio)가 사용된다. 보육선택에 대한 기존 국내문헌에서는 대부분 명목가구소득을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있지만, 동일한 금액일지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른 경제적 수준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 명목가구소득을 달리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윤홍식, 2004). 특히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욕구대비소득을 지원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판별하는 준거변수로서는 명목가구소득보다는 욕구대비소득비가 보다 적합한 변수로 판단된다. 보육선택에 대한 외국 연구들의 경우 욕구대비소득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Early & Burchinal, 2001 Peyton et al, 2001; Morrissey, 200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의 연구방법에서 다룬다.

가구일수록 유료 보육서비스를, 그 중에서도 특히 기관 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arly & Burchinal, 2001; Leibowitz, Waite & Witsberger, 1988). 이는 가구소득이 높은 가족일수록 비용, 운영시간, 위치와 같은 현실적인 요인보다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시설, 종사자의 훈련정도, 물리적 환경, 교육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Peyton et al.(2001)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Sylva et al., 2007)에서도 저소득층 가족은 친인척에 의한 보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보다 소득이 높은 가족들은 유급도우미에 의한 보호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무급의 친인척보육을 이용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유급 보육, 그중에서도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⁸⁾

다음으로 모의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유치원과 학원을 이용하며 낮을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연구결과(서문희 외, 2001)가 있으나 다른 연구들은 별다른 영향력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김지경, 2004a, 2004b; 백선희·조성우, 2005). 미국 연구들의 경우에도 모의 학력이 보육서비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못하다.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인척 보육보다는 기관보육서비스나 유급도우미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 반면(Fuller et al., 1996; NICHD, 1997), 기관보육보다 가정보육(다른 이의 집에서 유급도우미에 의한 보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Johansen, Leibowitz와 Waite, 1996).

3. 가족 특성 변수

가족구조도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8) 한편 미국 사회에서 또다른 중요한 계층변수인 인종은 보육서비스 선택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나는데, 흑인 아동의 경우 친인척보육의 이용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Early & Burchinal, 2001), 대체로 유럽계 미국 어머니들은 규제를 받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소수인종집단의 어머니들(라틴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규제를 받지 않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eo, 2003).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일수록 친인척보육을, 고소득층일수록 기관보육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부모 가구의 경우, 국내 연구에서는 한부모인 경우 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서문희 외, 2001), 이는 한부모가족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한국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자가족보다는 양부모가족이 기관보육 이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uller et al., 1996). 이는 한부모의 경우 비용이나 지리적 위치 같은 현실적인 요인(practical factors)을 더 중시하는 반면, 양부모가족은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quality)을 더 중시한다는 결과(Turner & Smith, 1983; Turner & Ballegos, 1984, Peyton et al., 2001에서 재인용)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보육서비스 선택 행태가 다를 것을 고려하여 양부모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가구 내 자녀수는 돌보아야 할 다른 자녀의 존재와 전체적인 보육서비스 비용의 희석으로 인해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연구의 경우 미취학아동수가 많을수록 기관이용이 많아진다는 연구결과(백선희·조성우, 2005)가 있으나, 기관이용과 무관하다는 결과(김지경, 2004a)도 보고되고 있다. 보육기관 이용비용이 높은 미국의 경우 오히려 가구 내 자녀수가 많을수록 기관보육보다는 가정 내 친인척 보육이나 아버지에 의한 보호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ICHD, 1997), Johansen et al(1996)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많은 가족들이 가정 내 보호와 혈연에 의한 보호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 경우 기관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하므로 한 명의 양육자가 여러 명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Leibowitz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가구 내 18세 미만 자녀수는 유아의 기관 이용 및 기타 유료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 내 순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이들이 유아를 돌볼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세대에 따른 가족구분을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으나, 세대에 따른 가족형태는 기관보육 간 선택에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김지경, 2004a, 2004b; 백선희·조성우, 2005). 다만 친인척보육을 선택하는 데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구내 성인 수가 많을수록

친인척 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서문희 외, 2001). 미국의 경우에는 가족구조의 영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미취학 자녀가 있는 취업 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Leibowitz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가구 내 함께 사는 다른 성인의 존재가 영아의 유아의 기관 이용 및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내 성인이 하나의 보육서비스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혈연에 의한 보호는 가구 내 다른 성인이나 십대 자녀가 함께 살고 있거나, 30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Eichman & Hofferth, 1993; Floge, 1985; Hofferth & Wissoker, 1992; Lehrer, 1983; Meyers & van Leuwen, 1992, NICHD, 1997에서 재인용). NICHD(1997)의 연구에서도 가구 내 동거하는 혈연이 있는 경우 조부모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 관련 변수

아동의 특성도 보육서비스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 등이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아동의 연령은 보육서비스 선택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영아의 경우 집단보호보다는 개인적인 일대일 돌봄이 더 적합하다는 믿음이 있으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들이 보육서비스의 돌봄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에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린 아동일수록 가정보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ungello & Kurtz-Costes, 1999; Seo, 2003).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아의 경우 친인척보육에 비해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이경선·김주후, 2009; 김지경, 2004a; 서문희 외, 2001; Early & Burchinal, 2001).

아동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은 일관되지 못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미국 연구에서 여아들은 비혈연에 의한 보육 또는 기관 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거나(Hiedemann, Joesch, & Ross, 2004, Sylva et al., 2007에서 재인용),

가능성이 오히려 낮거나(김지경, 2004b; Fuller, Holloway & Liang, 1996) 혹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 2004a). 유사한 맥락에서 아동의 기질이 보육서비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은데, Sylva et al(2007)에 따르면, 영아의 기질은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는 영향을 미쳤으나(더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이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이용 중인 보육서비스 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그들이 검토한 대다수의 연구들도 영아의 기질과 보육서비스 선택 간의 관계를 밝혀 내지 못했다(Mulhish, Moss, Mooney & Martin, 1991; Volling & Belsky, 1993, Sylva et al., 2007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아동의 출생순위는 영국에서 이루어진 Sylva et al(2007)의 연구에서 이용 중인 보육서비스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개월인 아동이 첫째인 경우에는 기관보육보다는 유급도우미나 이웃 등에 의한 개인대리보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둘째나 셋째 이상의 아동인 경우에는 기관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⁹⁾.

5. 지역 변수

가족이 놓여있는 주변 환경은 지금까지 비교적 탐색되지 않은 영역이나 직·간접적으로 가족의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의 보육서비스 선택은 주위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얼마나 풍부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령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육서비스의 유형이 있더라도 주변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특정 유형의 보육서비스가 얼마나 잘 발달되었는지에 대한 차이가 보고되고 있는데, 동남부 지역에는 이용가능한 기관보육서비스가 더 많은 반면, 서부 지역에서는 가정보육(childcare homes)이 더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sker, Hofferth, Phillips, & Farquhar, 1991, Peyton et al., 2001에서 재인용).

9) Sylva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의한 보육도 보육·교육서비스의 주요 형태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첫째인 경우 아버지보육보다 유급도우미나 이웃에 의한 보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Leibowitz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에서 거주하는 곳의 지역적 특성이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일수록 영아의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고, 유아의 기관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시골(rural area)에 거주하는 가족은 유아의 기관 이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Leibowitz et al., 1988), 친인척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유형의 조직적인 보육서비스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tkinson, 1994; Lehrer, 1983, NICHD, 1997에서 재인용).

국내 연구 중 서문희 외(2001)의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보육시설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농어촌 지역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개입기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보육서비스 선택의 영향요인을 살펴볼 때에 지역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1차년도 자료이다. 이 자료는 대규모의 여성 표본을 가지고 있는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종단자료로서, 미취학자녀 보육에 대한 정보 외에도 일자리 변화, 경제활동과 일가족양립, 가족 관계, 가족 가치관, 가족관계, 일상생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도 현재 3차 자료가 구축 중에 있으며 2차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는 1차년도인 2007년 자료를 대상으로 횡단면 분석을 하였다.

이 자료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으로서 주당 10시간 이상 부모 외의 대리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성가족패널 1차년도 자료에서는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1명의 아동(태어난

달이 가장 빠른 아동)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응답기준 아동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하였다¹⁰⁾. 대리보육 기준으로 설정한 주당 10시간의 기준은 기존 연구(Early & Burchinal, 2001; Morrissey, 2008)에서 대리보육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수치이기도 하다. 대리보육의 형태는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친인척보육으로서 유급의 도우미를 이용하는 시간¹¹⁾과 남편이 돌보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한부모 가족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한부모 가족이 매우 소수여서 별도의 분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한부모 가족일수록 기관보육 이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Fuller et al, 1996) 양부모 가족과는 다른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의 정의방식은 아래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요 보육방법’이라는 4범주 명목변수로서 응답기준 아동이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친인척보육의 네 가지 중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보육형태를 주요 보육방법으로 설정하였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과 가정보육시설이 포함되며, 직장보육시설은 사례수 부족(1명)으로 제외하였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국공립 및 민간유치원이 모두 포함된다. 학원은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과 피아노,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이 모두 포함되며, 여러 학원에 다닐 경우에는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보육형태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친인척보육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육형태를 주요 보육방법으로 설정하였다.

10) 여성가족패널에서 태어난 달이 가장 빠른 아동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것은 난선성(randomness)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2차년도 자료부터는 모든 아동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고 있다(이택면·김승연·우원규·이주영, 2009).

11) 유급의 비혈연 도우미를 통한 보육 또한 또 다른 보육선택지일 수 있다. 유급 도우미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 비용을 대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인척보육과 이용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범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선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구의 절대수가 매우 적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는 10시간 이상 대리보육 이용자 중 유급 비혈연 보육도우미를 주요 보육형태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는 8명으로, 10시간 이상 대리보육 이용자 중 0.7%에 불과하였다.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앞서 검토한 주요 선행 연구 결과 중 자료상 이용가능한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노동시장 관련 독립변수로는 모 근로형태와 부 노동시간이 투입되었다. 모 근로형태는 비근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미변수화하여 투입하였다. 주 평균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0시간은 비근로, 36시간 미만은 시간제 근로, 40시간 이하는 전일제 근로, 40시간 초과는 초과근로로 구분하였다. 주평균 노동시간을 0시간으로 보고한 사람들은 모두 비취업자였고, 취업자 중 근로시간기준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을 따랐다.¹²⁾ 부 노동시간은 연속변수인 주 평균 노동시간을 그대로 투입하였다.

가족 특성으로는 빈곤여부, 부모의 교육, 모 연령, 가구원 수 변수를 설정하였다.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는 욕구대비소득비(income-to-needs ratio) (Early & Burchinal, 2001; Peyton et al, 2001; Morrissey, 2008)를 활용하였다. 욕구대비소득비는 가구소득을 해당 가구원 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소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규모에 따라 동일한 소득이 다른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고, 단순한 가구소득보다는 가족규모를 반영한 욕구대비소득비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최저생계비 기준은 조사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욕구대비소득비가 1이하인 경우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므로 빈곤층으로 정의하였고, 2이하인 경우는 빈곤층 바로 상위층인 유사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 욕구대비소득비가 2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비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

부와 모의 교육수준은 각기 교육년수로 측정한 연속변수로 정의하였다.

12) 취업자 분류는 공식통계마다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데, 예컨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18시간미만의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로 분류하지 않으나, 생활시간조사나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는 18시간 미만의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통계청 e-나라지표; 이택면외, 2009).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한 본 연구에서는 18시간 미만의 무급가족종사자도 취업자로 분류하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분류를 따랐다. 한편 시간제근로 또는 단시간근로의 경우에도 분명한 통계적 기준이 정의되지 않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를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주로 40시간 또는 44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통계청 e-나라지표).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에 따라 36시간 미만의 취업자를 시간제근로자로 분류하였다. 좋은 정보를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모의 연령은 만 연령으로 측정하였으며, 부의 연령은 모 연령과의 높은 상관관계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가구원 수는 가구 내 19세 이하 아동 수와 20세 이상 성인 수로 각각 정의하였다. 아동 수의 경우에는 돌봄 수요와 관련된 변수로, 성인 수의 경우에는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아동 관련 변수로는 아동의 연령, 출생순위, 성별을 포함하였다. 아동의 연령은 만 연령으로 정의된 연속변수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련 변수로는 부모의 주거지역이 속한 행정단위의 지역 규모 변수를 설정하였다. 대도시는 서울 및 6대 광역시로, 중소도시는 시 지역, 농촌은 군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표 1〉 변수설정

변수		수준	설명
종속 변수	주요 보육형태	명목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보육형태, 친인척보육(동거가구원, 비동거가구원),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원(교과목학원, 예체능학원, 하나 이상인 경우 합산)
	노동 시간	명목	주평균 노동시간 기준, 비근로(0), 시간제(36미만), 전일제(36이상 40이하), 초과근로(40초과)
독립 변수	부 노동시간	연속	주평균 노동시간
		연속	주평균 노동시간
	계층	명목	욕구대비소득(income-to-needs ratio) 기준, 빈곤(1이하), 유사빈곤(1초과 2이하), 비빈곤(2 초과)
		연속	부 교육년수
		연속	모 교육년수
	가족 특성	연속	모 만 연령
		연속	19세 이하 가구원 수
		연속	20세 이상 가구원 수
	아동 특성	연속	응답대상 아동 만 연령
		연속	응답대상 아동 출생 순위
		명목	응답대상 아동 성별
	지역 특성	명목	주거 지역이 속한 행정단위 유형, 대도시(서울·6대광역시), 중소도시(시지역), 농촌(군지역)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된 보육선택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분석을 적용하였다. 다항로짓분석은 한 범주를 기준으로 다른 범주가 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범주를 두 가지씩 매칭(matching)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형태를 각기 매칭하여 비교하지 않을 경우,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는 선택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예컨대 보육시설대신 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와 친인척보육을 선택하는 경우의 선택의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 있으나, 매칭이 아니라 보육시설 선택 대비선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그 차이를 희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범주를 두 가지씩 매칭하여 총 6가지 회귀식도 도출되었다. 모형 1에서는 친인척보육을 기준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확률을 계산하였다. 모형 2에서는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유치원과 학원의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친인척보육의 경우 모형 1과 부호만 반대이므로 생략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학원의 선택을 비교하였다.¹³⁾

IV. 연구결과

1. 변수의 일반적 분포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의 일반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우선 보육형태의 경우,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공식적인 육아지원기관이 가장 일반적인 대리보육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두 기관 중에서는 보육시설의 비율(45.5%)이 유치원(40.4%)보다 약간 높았다. 조부모 등 친인척보육의 경우에도 전체의 11.2%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아대상학원의

13) 익명의 심사자의 권고에 따라 취업상태인 여성들만 뽑아서 동일한 변수투입 또는 근로시간을 연속변수화하여 재분석을 시도한 결과, 사례수의 감소로 유의수준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분석결과는 거의 동일하였다. 이에 따라 취업상태인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의 분석결과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한만큼 대리보육 형태로서의 비중은 2.9%로 가장 낮았다.

노동시장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비근로가 71.1%로 나타나 대다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노동시장참여 곡선이 M자형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미취학아동 양육 시기 여성들의 노동시장 퇴장이 일반화된 현상임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주 10시간 이상 대리보육 이용자임을 고려하면, 대리보육 이용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비근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여성들은 전체의 7.5%로 소규모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시간제근로 시장의 미발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일제 이상 근로하는 비율은 전체의 21.4%였는데, 그중에서도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로하는 경우가 11.4%로 주 40시간 이하 근로인 10.0%보다 많았다. 이는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제도가 법정화된 이후에도, 초과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부의 노동시간은 평균 50.6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훨씬 넘기고 있다.

가족 관련 변수 중에서 빈곤여부의 경우 빈곤이 4.9%, 유사빈곤이 32.2%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층 규모는 조사시점인 2007년도 절대빈곤율 5.1% (통계청, e-나라지표)와 유사한 수치로서, 저소득층을 과대 또는 과소대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의 평균 교육년수는 14.13년, 모의 평균 교육년수는 13.63년으로 나타나 양쪽 모두 전문대 졸업의 평균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연령 평균은 35.12세였다. 가구 내 19세 이하 아동 수는 평균 2명이며, 20세 이상 성인 가구원 수도 평균 2명으로 부부와 2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가 가장 일반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 관련 변수로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미취학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5.16세로 나타났으며 평균 출생순위는 1.67번째 자녀였다. 아동성별은 남아가 52.1%, 여아가 47.9%로 남아가 약간 더 많았으나 거의 유사했다. 지역규모로는 대다수인 92.4%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은 7.6%였다. 도시 중에서는 대도시가 48.8%, 중소도시가 43.6%로 대도시가 약간 더 많았다.

〈표 2〉 기술통계

변수		사례수	비율 또는 평균 (표준편차)	변수		사례수	비율 또는 평균 (표준편차)
보육형태	친인척보육	136	11.2%	모 근로형태	비근로	862	71.1%
	보육시설	551	45.5%		시간제	91	7.5%
	유치원	490	40.4%		전일제	121	10.0%
	학원	35	2.9%		초과근로	138	11.4%
빈곤여부	빈곤	57	4.9%	지역	농촌	92	7.6%
	유사빈곤	377	32.2%		중소도시	528	43.6%
	비빈곤	737	62.9%		대도시	591	48.8%
부 노동시간		1142	50.60 (12.78)	아동가구원수		1212	2.01 (0.63)
부 교육년수		1211	14.13 (2.30)	아동연령		1212	5.16 (1.60)
모 교육년수		1212	13.63 (2.04)	아동출생순위		1212	1.67 (0.69)
모 연령		1212	35.12 (4.01)	아동성별	남아	631	52.1%
성인가구원수		1212	2.12 (0.46)		여아	581	47.9%

2. 보육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취학아동 가족의 보육선택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친인척보육을 기준으로 각 기관을 이용할 확률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노동시장 관련 변수 중에서는 모의 근로형태만 유의미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일제와 초과근로를 할수록 기관이용을 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원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긴 어머니들은 기관 이용보다는 친인척보육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모의 근로형태 중 시간제 근로를 할 경우에는 기관이용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다. 한편 모의 노동시간과는 달리 부의 노동시간은 기관이용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관련 변수 중 빈곤변수의 경우, 유사빈곤 상태일수록 친인척보육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과 학원 이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성인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친인척보육보다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기관에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가구 내 부모 외의 성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보육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외 부모의 교육수준, 모의 연령, 아동가구원 수는 기관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특성 중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변수가 유의미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친인척보육보다는 기관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모든 기관에 대해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아동의 출생순위도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아래자녀일수록 친인척보육보다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둘째 혹은 셋째 자녀를 첫째 자녀와 함께 기관에 등원시키거나, 첫째 자녀 양육의 경험이 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줄이기 때문, 또는 돌보아야 할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보다 일찍 기관의 도움을 얻는 등의 이유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생순위별로 보육료나 교육비를 차등지원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아동의 성별 및 지역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3〉 모형 1(친인척보육 기준) 분석결과

	모형 1 (N=1104, Nagelkerke's Pseudo R ² =.461, McFadden's Pseudo R ² =.244)					
	보육시설 (친인척보육기준)		유치원 (친인척보육기준)		학원 (친인척보육기준)	
	B	Exp(B)	B	Exp(B)	B	Exp(B)
모 근로형태(비근로기준)						
시간제	0.09	1.09	0.01	1.01	0.91	2.47
전일제	-1.46 **	0.23	-2.42 **	0.09	-2.92 **	0.05
초과근로	-2.30 **	0.10	-2.91 **	0.05	-3.48 **	0.03
부노동시간	-0.01	0.99	-0.02	0.98	-0.01	0.99
빈곤여부(비빈곤기준)						
빈곤	1.39	4.02	0.22	1.24	1.47	4.33
유사빈곤	0.86 **	2.35	-0.03	0.97	0.04	1.04
부교육연수	-0.06	0.94	-0.02	0.98	0.05	1.06
모교육연수	-0.06	0.95	0.01	1.01	-0.05	0.95
모연령	0.03	1.03	0.04	1.04	0.08	1.09
아동가구원수	-0.13	0.88	-0.25	0.78	0.23	1.26
성인가구원수	-1.37 **	0.25	-1.04 **	0.35	-1.01 *	0.36
아동연령	0.61 **	1.85	1.31 **	3.69	1.04 **	2.84
아동출생순위	0.63 *	1.89	0.71 *	2.03	0.20	1.22
아동성별(남아기준)						
여아	-0.14	0.87	-0.21	0.81	-0.06	0.94
지역(농촌기준)						
대도시	0.27	1.32	0.77	2.16	1.24	3.45
중소도시	0.27	1.31	0.57	1.78	1.32	3.75

다음으로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유치원과 학원 등 교육중심 기관을 이용할 확률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우선 노동시장 관련 변수 중에서는 모가 전일제와 초과근로를 할수록 유치원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학원이용에는 모의 근로형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앞서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의 노동시간은 보육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돌봄에서 아버지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관련 변수 중에서 빈곤 여부는 유치원 이용에 분명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빈곤층 또는 유사빈곤층일수록 유치원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이용의 경우에도 방향성은 동일하였으나 통계적 유의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 외 부모의 교육, 모의 연령, 아동가구원 수, 성인가구원 수는 보육시설 대비 교육기관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특성 중에서는 아동의 연령만 유의미하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보육시설보다는 유치원과 학원 등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외 아동의 출생순위나 성별, 그리고 지역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을 기준으로 학원이용을 살펴본 모형 3의 결과는 <표 4>의 가장 오른쪽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시장 변수, 가족관련 변수, 아동관련 변수, 지역 변수 중 어떤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학원 이용자의 사례수가 적기 때문(31)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모형들(모형 1, 2)에서는 적은 사례수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변수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결론적으로 유치원과 학원을 이용하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학원을 주 10시간 이상 이용하는 부모들의 경우 사실상 이들 두 기관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모형 2(보육시설 기준) 및 모형 3(유치원 기준) 분석결과

	모형 2 1)				모형 3 1)	
	유치원(보육시설기준)		학원(보육시설기준)		학원(유치원기준)	
	B	Exp(B)	B	Exp(B)	B	Exp(B)
모 근로형태(비근로기준)						
시간제	-0.08	0.93	0.82	2.27	0.89	2.45
전일제	-0.97**	0.38	-1.46	0.23	-0.49	0.61
초과근로	-0.61*	0.54	-1.18	0.31	-0.57	0.57
부노동시간	-0.01	0.99	0.00	1.00	0.01	1.01
빈곤여부(비빈곤기준)						
빈곤	-1.18**	0.31	0.07	1.08	1.25	3.49
유사빈곤	-0.89**	0.41	-0.82	0.44	0.07	1.07
부교육년수	0.04	1.04	0.11	1.12	0.07	1.07
모교육년수	0.07	1.07	0.01	1.01	-0.06	0.94
모연령	0.00	1.00	0.05	1.05	0.05	1.05
아동가구원수	-0.12	0.89	0.36	1.44	0.48	1.62
성인가구원수	0.33	1.40	0.36	1.44	0.03	1.03
아동연령	0.69**	2.00	0.43**	1.54	-0.26	0.77
아동출생순위	0.07	1.08	-0.43	0.65	-0.51	0.60
아동성별(남아기준)						
여아	-0.06	0.94	0.08	1.09	0.15	1.16
지역(농촌기준)						
대도시	0.50	1.64	0.96	2.62	0.47	1.60
중소도시	0.30	1.36	1.05	2.86	0.75	2.11

1) 사례수 및 Pseudo R²값은 모형 1과 동일.

3. 결과 요약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는 6개의 회귀식 중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만을 뽑아 영향 요인에 따른 보육유형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보육시설은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로서의 기능이 가장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친인척보육은 어린 아동에게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모의 긴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서비스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유치원과 학원의 경우 연령이 높은 미취학아동들이 이용하는

교육서비스로서 위치매김하고 있는데, 유치원과 학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영향요인에 차이가 거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두 기관을 이용하는 집단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부모들이 두 기관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보육서비스 선택 결정요인 요약

영향요인	보육서비스 순위
모가 전일제, 초과근로일수록	친인척보육 > 보육시설 > 유치원, 학원
저소득층일수록	보육시설 > 친인척보육, 유치원, 학원
성인가구원수 많을수록	친인척보육 >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아동연령 높을수록	유치원, 학원 > 보육시설 > 친인척보육
아래자녀일수록	보육시설, 유치원 > 친인척보육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 중 주당 10시간 이상 대리보육을 이용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노동시장 요인 중에서 모가 전일제와 초과근로를 할수록, 즉 모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친인척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육시설이 다음이고, 유치원과 학원의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유치원과 학원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선행연구 결과(김지경, 2004a; 백선희·조성우, 2005; 서문희 외, 2001)를 넘어서서, 단순히 취업여부보다는 장시간근로 유무가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모의 노동시간이 길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관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미국의 선행연구(Caruso, 1992)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결국 한국에서는 보육시설이 취업여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일정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여성들의 긴 노동시간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일제 이상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기관 중에서는 유치원이나 학원보다는 보육시설이 장시간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만, 보육시설의 스케줄이 긴 노동시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여 친인척보육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친인척보육이 저소득층의 주요 보육서비스로 활용되기 보다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완충지대로 기능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둘째, 가족이 저소득층일수록 다른 보육형태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저소득층은 보육시설을, 소득수준이 높으면 유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선행연구(이경선·김주후, 2009; 김지경, 2004a; 서문희 외, 2001)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탐색되지 않은 친인척보육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앞서 노동시간에 대한 결과와 함께 해석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친인척보육은 저소득층이 보육비용을 아끼기 위한 목적보다는 긴 노동시간을 보완하기 위한 보육형태로서 활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관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미국의 선행연구(Early & Burchinal, 2000) 결과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대부분이 사적 시장에서 제공되어, 기관이용의 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미국의 상황과, 보육시설 대부분이 민간시설이기는 하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가 상당 부분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일수록 보육료 지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높고 친인척보육은 보육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 반면, 미국은 보육시설 이용 비용이 높기 때문에 부모 보호나 친인척 보호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인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관 이용보다는 친인척보육 이용 가능성이 높고, 아동의 연령이 높고 아래 자녀일수록 기관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이경선·김주후, 2009; 김지경, 2004a; 서문희 외, 2001; Early & Burchinal, 2001; Leibowitz et al., 1988; NICHD, 1997; Pungello & Kurtz-Costes,

1999, Sylva et al, 2007)와 일치한다. 즉,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부모들도 가구 내 다른 성인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을 도와주는 보육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어린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기능보다는 ‘가정에 가까운’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 중에서도 유치원과 학원의 경우 대리보육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연령이 높은 미취학아동들이 이용하는 교육서비스로서 위치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이 종일반 확대 등을 통해 보육기능을 강화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부모들은 유치원을 연령이 높은 아동의 교육기관으로서 선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유치원과 학원의 기능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먼저 보육시설의 취업모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외연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모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보육료 지원이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저소득층의 이용률을 높이는 유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은 저소득층일수록 기관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국의 상황에 비하면 저소득층의 진입장벽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중에서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욕구가 없는 비취업모에게도 비용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우선 입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소득에 기반한 욕구와 보육서비스 필요에 기반한 욕구를 구분하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육비 지원의 폭이 커지는 차등보육료 지원 구조는 유지하면서,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취업모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김혜원 외(2007)가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스웨덴의 사례¹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비취업모의 아동에 대해서는 반일제의 권리만을 부여하고 비용도 차등화시키며, 국공립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취업모 우선의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등 취업모

14) 취업모를 지원하는 보육시스템이 잘 발달한 스웨덴의 정책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이용에 대해 취업모의 권리를 우선 할당하고 있으며, 비취업모에게는 공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보육서비스가 취업모에 대한 지원서비스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김혜원 외, 2007).

지원 기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¹⁵⁾

보육시설이 보편적 서비스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일하는 여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모들의 긴 노동시간과 대도시에서 일상화된 장시간의 출퇴근 등을 고려할 때 취업모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시설이 하루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늦은 시간에는 남아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음으로 인해 취업모들은 이른 아침부터 혹은 늦은 시간까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담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부담은 비취업모들의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높은 것과도 관련되는데, 비취업모의 자녀들은 하루 평균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6시간 57분으로 나타나는 반면, 취업모의 자녀들은 8시간 38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문희 외, 2009), 상대적으로 취업모들은 자신의 자녀들만 보육시설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전일제 및 초과근로 등을 하는 여성들에게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등 연장보육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 조달과 관리 등 현실적 조치를 통해 보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¹⁶⁾

15)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p67)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이용순위의 1, 2순위 항목 중 2개 이상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 배수 반영 등의 방법으로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겠다는 등의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 맞벌이 가족의 경우 두 가지 1순위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 우선적인 입소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맞벌이와 저소득층을 함께 1순위로 지정하고 있는 현행 체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16) 실제로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보육시설조사보고서」(유희정외, 2009: 126-127)에 따르면, 보육시설들이 야간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지역·시설특성상 구직자가 없다(36%)’, ‘자격소지자를 찾기 어렵다(15.9%)’ 등으로, 인력조달과 관리에 대한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야간보육교사가 원하는 ‘희망보수가 높다’는 경우도 22.4%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야간보육교사 인력조달과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들이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시간연장보육이나 야간보육을 통해 부모의 노동을 지원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부모가 하루에 일정 시간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족시간을 확보해 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주 평균 50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어 자녀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축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이러한 근무형태가 여성에게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미취학아동 가족의 일가족 균형을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정책 방향이며,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해당된다.

한편, 국가의 공식적 지원과 규제를 받는 유치원과 시장에서 제공되는 민간 서비스인 유아대상 학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요인이 거의 같게 나타난다는 것은 부모들이 이들 두 서비스를 유사한 맥락에서 선택하고 있으며, 두 가지 서비스 유형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존연구(이정원·이윤진, 2008)에서도 부모들이 유아대상 반일제 학원과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기능상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대상 학원을 두고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와 같은 명칭이 부모들 사이에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것도 부모들의 인식을 혼란케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모들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의 육아지원기관이 공공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이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유아대상 학원에 대해 일정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친인척 보육의 선택확률이 높아지는 점과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개별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이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모의 근로시간이 긴 경우 다른 서비스로는 근로시간을 모두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층인 경우 다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높은 질적 수준을 갖춘 보육·교육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취업모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설치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취업모 우선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숙(2001). 학부모의 유아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문순영(2009). “영유아 돌봄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8(2), 221-260.
- 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지경(2004a).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8), 65-76.
- 김지경(2004b)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5(3): 67-86.
- 김혜원·김경희·이주희·최은영(2007)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영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 한국노동연구원.
- 백선희·조성우(2005)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수준과 결정요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1: 429-455.
- 보건복지부, 2009. “2009년 보육통계” <http://www.mw.go.kr>.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안)』.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임상헌·김유경(2001). “자녀양육실태와 미취학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1-265.
- 서형미(2002). 유아교육 기관 선택시 고려요인과 선택과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의(2009)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육시설방문면접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홍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5-27.

- 이경선 · 김주후(2009). “여성의 유치원 · 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0), 464-473.
- 이삼식 · 최효진 · 오형희 · 서문희 · 박세경 · 도세록(2009).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원 · 이윤진(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택면 · 김승연 · 우원규 · 이주영, 2009 제 1차 여성가족패널자료 사용자 안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임유경(2008). 영유아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훈(2008).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선(2006).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7.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62).

- Early, D. M. & Burchinal, M. R. (2001). Early childhood care: relations with family characteristics and preferred care characteristic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6, 475-497.
- Folk, K. F. & Yi, Y. (1994). Piecing together child care with multiple arrangement: crazy quilt or preferred pattern for employed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69-680.
- Fuller, B., Holloway, S., & Liang, X. (1996). Family selection of child-care centres: the influence of household support, ethnicity, and parental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7, 3320-3337.
- Gornick, J. C. & Meyers, M. K.(2005). *Families that wor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Johansen, A. S., Leibowitz, A., & Waite, L. J.(1996). The importance of child-care characteristics to choice of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759-772.
- Morrissey, T. W.(2008). Famili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multiple child care arrang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0, 549-563.
- Leibowitz, A., Waite, L. J., & Witsberger, C.(1988). Child care for preschoolers: differences by child's age. *Demography*, 25(2), 205-220.
- Peyton, V., Jacobs, A., O'Brien, M., & Roy, C.(2001). Reasons for choosing child care: associations with family factors, quality, and satisfac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6, 191-208.
- Pungello, E. P. & Kurtz-Costes, B. (1999). Why and how working women choose child care: a review with a focus on infancy. *Developmental Review*, 19, 31-96.
- Seo, S. J. (2003). Early child care choices: a theoretical model and research implication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3(6), 637-650.
- Sylva, K., Stein, A., Leach, P., Barnes, J., Malmberg, L. E., & the FCCC-team(2007). Family and child factors related to the use of non-maternal infant care: an English stud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 118-136.
-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7). Famili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onmaternal care for infa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89-408.
- Vincent, C., Braun, A., & Ball, S. J. (2002). Childcare, choice and social class: caring for young children in the UK. *Critical Social Policy*, 28(1), 5-26.

Factors Influencing Childcare Choice of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Ahn, Jae-jin^{*} · Kim, Eun-ji^{**}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childcare choice of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who use childcare service more 10 hours a week. The first wave data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were used for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mothers with longer working hours were most likely to use personal carers, and they prefer childcare facilities to kindergartens or for-profit private institutes (hakwon). Secondly, the poor and near-poor families tend to use childcare facilities more than other types of childcare. Thirdly, the number of adults in the household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use of personal carers, and Lastly, parents were more likely to choose institutional childcare for older children.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childcare facilities were needed to accommodate full-time and overtime working mothers. Secondly, more family-friendly atmosphere at workplace and in society as a whole should be established which supports child-rearing of parents. Lastly, child-rearing facilities with governmental support and supervision (that is, childcare facilities and kindergartens) should be recognized as public service and more support and extensive promotion were needed for these child-rearing facilities distinguishable from for-profit private institutes.

Key words: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childcare choice, type of childcare, Korea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 Professor, Sookmyung University

^{**} Research Fellow, KWDI